

2차대전후 프랑스의 베트남정책 小考

신재창*

목 차

| | |
|-----------------|--------------------|
| I. 머리말 | IV. 미국의 개입과 전쟁의 확대 |
| II. 프랑스의 복귀와 전쟁 | V. 드골의 정책방향 |
| III. 제네바협정 | VI. 프랑스-베트남의 현안문제 |

I. 머리말

결프전 이래로 모든 경기가 쇠퇴 일로에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황도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구주와 북미주를 비롯하여 세계의 각 지역군이 지역별로 단합하여 경제를 블럭화 하는 현상을 보고 있다. 최근 구주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지난 11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이 구주연합(European Union) 가맹국간에는 사실상 국경이 철폐되고 단일시장으로의 길을 가속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성공함으로써 캐나다-미국-멕시코 북미 3국의 단일 시장화가 굳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환태평양 경제권이 준비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프랑스의 구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제국도 변하고 있다. 유엔의 지원으로 자유화 되어가는 캄보디아가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국도를 적화통일시킨 뒤 이웃 캄보디아를 강점(1978-1985)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베트남도 1986년 이래로 선진제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베트남의 개방과 더불어 몰려오는 이 선진국의 대열에 베트남과 특수관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선두그룹에 끼어있고, 베트남과의 경험을 추가하고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1859년 남부 베트남의 코친차이나를 식민지화 한 이후, 1883년이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이 독립할 때까지 근 백년간 이 나라를 완전 점령했던 프랑스는 대전이 끝난 후 전쟁을 하면서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계속해 왔다. 호찌민의 공산혁명으로 남-북 베트남이 수십년간 전쟁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프랑스의 우방인 미국이 대대적으로 개입하여 공산정권과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드골 대통령의 독자적 외교정책자적 외교정책은 물론, 역대 프랑스

* 파리대학교 정치제도 비교분석연구소 연구원

정부는 여전히 남북의 두 베트남을 동시에 지원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하노이 등 북부 베트남 요지에 대한 폭격이 개시됨과 동시에 좌-우파를 막론하고 지식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프랑스인들은 북쪽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소위 “인도적 지원”(Aide humanitaire)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의약품과 과학 기자재를 베트남의 공산정권에게 제공했으며 소규모의 실험실 등을 건설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남부의 우익 정부인 베트남 공화국은 1965-1973년간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까지 한다. 구식민지에서의 자국 이익을 확보하고 미국의 독점을 견제하려던, 이 두 베트남 동시지원정책은 드 골 이후의 역대 우파정부는 물론,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정부에 의해서도 계속 승계 이행되었다. 본고에서는 2차 대전 종결 이후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려 한다.

II. 프랑스의 복귀와 전쟁

1940년부터 프랑스 총독부에 압력을 가해 베트남 내에서의 공항이용 병력이동의 자유 등을 획득한 뒤 마음대로 작전을 펴오던 일본은, 1945년 3월 9일 프랑스 총독과 고관관리들을 연금시키고, 이를 후인 11일 일본의 권장하에 바오 다이 황제는 베트남의 보호령 조약이 무효라는 성명과 함께 우선 남부와 중부만을 가지고 베트남의 독립을 선포하고, 쩐 쯡 김(Tran Trong Kim)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24일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북·중·남부 베트남 3개지역, 라오스, 캄보디아)가 해방되고 자기네가 이를 다시 접수하게 되면 화폐·세관·경제·국방·치안 등의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고, 이를 프랑스의 조정하에 “인도차이나 연합”(Fédération indochinoise)과 “프랑스 연합”(Union française)으로 규합하여 공동관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7월, 일본은 프랑스 총독부를 해체시키고, 톡킹과 코친차이나를 베트남 황제 속령으로 환원시켰다. 한편 8월 7일, 호 쯤 민은 “베트남人民解放委員會”를 조직하고, 13일, 탄 따오(Tan Tao)에서 인민해방위원회 전국회의를 소집시켜 인도차이나공산당(PCI)과 베트남이 공동작성한 총봉기안을 결의케 한다. 8월 15일 일본의 패망후 곧 프랑스 高等辦務官(Haut Commissaire)이 임명되어 프랑스인만으로 연합정부(Gouvernement Fédéral)를 수립하였으나 동시에 베트남은 하노이를 점령하였고, 이후 수일내에 전국을 지배하였다. 25일, 베트남의 사이공 점령, 바오 다이의 하야, 쩐 내각 해산 등의 사태가 단시일내에 벌어졌다.

이윽고, 1945년 8월 29일, 호 쯤 민은 공산당 일색으로 하노이에 국가해방임시정부를 수립하고(바오 다이는 최고 고문으로 추대), 9월 2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해서 호 쯤 민이 영도한 인도차이나공산당의 반식민주의운동에 대단원을 내리고 베트남民主共和國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Viet-Nam)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국가는 갈길이 아직 요원하였다. 대일 항전시에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호 쯤 민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반식민주의를 표방하는 강대국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미, 소, 중 3대강국은 포츠담회의(1945. 7월)에서, 인도차이나가 여전히 프랑스에 속하며, 일본이 항복할 경우 중부 베트남의 북위 16° 이북은 중국이, 이남은 영국이 진주하여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기에 중국이 개입하고 프랑스가 복귀할 경우, 독립이 무산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1945년 9월 24일에는 영국의 권유로 프랑스는 쿠데타(Coup d'Etat)로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는 사이공을 탈환한 뒤, 10월에는 프랑스에서 지원부대가 도착하여 하노이에 입성하여 호 쯤 민의 정부를 해산시켰다. 이로부터 지하로 잠적한 베트남의 대프랑스 게릴라전이 개시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28일 프랑스는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은 베트남에서 경제적 이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철군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은 5월에 철군하였다.

1946년 3월 2일 프랑스와 비밀협약을 맺어 호 쯤 민은 “국민연합-저항정부”(Gouvernement d'Union nationale et de résistance)를 세웠다. 이 조약은 “인도차이나연합” 및 “프랑스연합”에 들어온다면, 베트남공화국이 독립적 정부·의회·군대·재정을 가지며, 3끼(圻, Ky)¹⁾의 통일문제는 차후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남부에서는 베트남의 게릴라항전이 중지되고 양국은 협상에 들어가는 한편, 프랑스군은 북·중부에 진주하여 하이퐁, 하노이, 남딘 등을 점수하였다. 4월부터 달라(Dalat)에서 프랑스-베트남 예비회담 후, 7-8월에는 프랑스 파리 근처의 퐁텐느블로(Fontainebleau)에서 호 쯤 민도 참석, 회담하였으나 베트남측의 단독 준독립을 즉시 허용하거나 단시일내 독립시킨다는 보장 요구와 프랑스측에서 주장하는 인도차이나연합 및 프랑스연합 가입문제 우선으로 중단되었다.

양측이 시간만 보내고 합의를 이르지 못하는 동안, 9월에 프랑스해군은 베트남공화국이 인도차이나 연합관계 협약에 가입않는데 대한 징벌이라는 명목으로, 12월 19일, 하이퐁항에 포격을 하였다. 이에 20일부터 양측은 전면전으로 돌입하였다. 호 쯤 민은 하노이를 떠나 “프랑스의 식민지 재정복”을 비난하며서 프랑스를 격파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중공의 지원으로 인민해방군을 공고히 한 후, 대규모 대불항전을 시작하였다. 베트남과의 협상에 불만이던 우파의 일부가 저지른 이 포격이 양측을 전쟁으로 불러들였고, 반식민주의운동의 최종단계인 대불전쟁인 제1차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949년 8월, 프랑스는 호 쯤 민과 전쟁을 계속하면서 바오 다이를 수반으로 하는 남부베트남(베트남공화국)을 독립시키고 12월 31일에 정권을 이양하였다. 이 때 프랑스는 이 신생 반

1) 베트남을 圻로 나누기도한다. 北圻, 中圻, 南圻.

공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의 중국 저지(Containment) 계획에 베트남을 끼워넣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남 베트남이라는 또하나의 반공 보루가 동남아에 생겼다. 1950년 1월 14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자기만이 베트남의 유일한 합법국가라고 선포하자, 중공은 16일, 소련은 30일에 즉각 이를 승인하고 이어서 동구를 비롯한 공산 국가가 이에 따랐다. 곧 이어 프랑스의 요구로, 미국과 영국이 2월 7일에 바오 다이 정부를 승인한 뒤, 모든 자유진영 국가들이 남 베트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중공과 소련이 지원하는 호찌민 정부와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는 바오 다이 정부는, 동-서 양대 블록의 대결장이 되고, 공산세력의 공격이 북-중-남부 베트남 전역에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프랑스는 미국의 개입을 원하게 되었다. 1953년 3월 28일, 내각책임제이던 당시 프랑스의 최고 결정권자인 메이에르(René Meyer) 수상은 워싱턴에서 아이젠하우어 미 대통령을 만나, 프랑스측은 인도차이나 문제가 한국 동란과 연계된 것이고, 한국에서 휴전이 될 경우 분명히 중공은 극동의 다른 지역을 지원할 것이므로, 불-미 양국간의 정치-군사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프랑스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공산세력을 저지하겠으나, 미국의 물질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미국측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었다. 이 회담 이후 미국은 프랑스에게 라오스를 통하여 다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공수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한국동란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되어 일단 전투가 중지되었으나, 1946년 이래 계속되어온 인도차이나에서는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소련등 4대강국은 1954년 2월에 가진 베를린회의에서 인도차이나 전쟁을 협상에 의해 종식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해 5월에 제네바에서 동서 양진영의 9개국이 참가한 이 회담으로서 제1차 베트남전쟁도 결말을 보게 되었다.

III. 제네바협정

1954년 5월 8일-7월 20일 사이에 열린 제네바 회담은, 서방측에서는 영국·미국·프랑스·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공산권에서는 소련·중공·베트남민주공화국등 9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인도차이나 전쟁 종식을 토의하였다. 이 회담 개시 바로 하루 전인 5월 7일에 회담 당사자이고, 베트남의 식민국인 프랑스는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였다. 완벽한 요새에서 현대 장비로 무장한 11,000명의 프랑스-베트남 연합군은 51,000명²⁾의 공산 베트남 군에게 완전히 패배당하였다. 이 패전의 우울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마라톤

2) Ed. Danoël, Yves Gras, "L'Aventure coloniale de la France," *Histoire de la Guerre d'Indochine* (Paris, 1992), p. 537.

회담에서 프랑스연합군 사령관과 인민군 사령관간에 휴전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이 맺어지고, 참가 대표 전원에 의해 베트남의 주권·독립·단일성·국토의 분단불가 등을 결의하는 “종결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제1차 베트남전쟁은 종결되고, 당시 내각 책임제하의 사회당의 망데스 프랑스(Mendès-France) 수상(1954. 6 - 1955. 2)의 프랑스 정부는 오랜 전쟁을 일단 휴전시키고, 식민지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 이로써 베트남전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미국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1956년 7월에 선거로 결정되기까지, 베트남은 북위 17°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 두 지역으로 분단되며, 북부는 이 지역에서 단독 합법 정부로 인정된 베트남민주공화국이 관할하고, 남부는 17°선 이남을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프랑스연합” 헌법에 따라 통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1946년에 호찌민이 북부 베트남을 점령하고 프랑스가 남부를 통치하던 때와 같은 상황이나, 다른 점은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협정은 거의 협약대로 집행되었으나, 정치적 조치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 “종결 선언”에는 국민적 자유의사 표시를 위한 선거를 1956년 7월에 치루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두 지역은 1955년 7월에 이 문제를 협의키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보복 금지·민주적 자유 회복·통행의 자유·선거 준비 등은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곧 이 협정이 베트남의 식민상태 해소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만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게 분명해졌다. 여하간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이 해 10월 11일에 프랑스-베트남연합군이 철수한 북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부에 거주하던 많은 베트남인들이 공산치하를 피해서 남으로 내려와야 했고, 각종 경제적·사회적 불편과 불안이 뒤따랐다. 이에, 사이공과 후에를 비롯한 남부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북부를 공산정권에 넘겨줬다는 비난과, 프랑스가 호찌민 정권에 대해 취한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갔다.

IV. 미국의 개입과 전쟁의 확대

한편, 남부에서는 바오 다이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극우 반공주의자 오 딘 지엠(Ngo Dinh Diem)이 제네바 협정과는 달리 별개의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를 통해 제공되었던 미국의 군사지원이 베트남군에게 직접 전해졌다. 오 딘 지엠은 1955년 2월, 까오 다이, 호아 하오, 빈 쑤엔³⁾ 등 모든 정파를 규합한 연합정부 구성을 요구하던 종교-정치

3) Cao Dai (高臺): 1925년 오 반 쩌에우(Ngo Van Chieu)가 도교, 불교, 기독교의 교리를 종합하여 만든 교파로서 팜 콩 락(Pham Cong Tac)이 교주 / Hoa Hao(和好): 1939년에 후인 푸 소(Huynh Phu So)가 만든 불교를 간소화한 종파 / Binh Xuyen: 보수 비밀결사. 주로 남부 월남에서 성행한

세력을 진압하고, 북부에서 월남한 80만 명의 카톨릭을 지지기반으로 확보한 뒤, 독일이나 한국과 같이, 북부와 분리된 독립국가를 세웠다. 북으로부터 차단된 국가를 형성하여 영토적·정치적·경제적으로 확실한 베트남 민족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의 침투를 봉쇄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지엠 정권은 일체의 대북 접촉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1955년 1월에 하노이 정부가 요구한 양 베트남간의 교역·서신 왕래·철도 부설·항공 연결 등을 묵살하고, 7월에 제네바협정에 의거한 선거 실시를 위한 모임을 갖자는 하노이의 제안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서방측의 봉쇄에 직면한 호 쩌 민 정부는 결국 다시 중공과 소련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되고, 1955년 7월 이후 양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북 베트남 경제재건에 노력하였다.

지엠 정권은 점점 독재적이 되고, 친공인사들에 대한 “고발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어서 지엠이 보다 합법적인 기반을 조성키 위해,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지엠과 바오 다이 중 양자택일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10. 23) 98.3%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한 후, 바오 다이를 하야시키고, 3월에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베트남공화국(남부)이 참가치 않고 다만 프랑스만이 서명한 제네바협정 집행을 강요한다는 구실로,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철군을 요구함으로써 1956년 4월 28일, 마지막 프랑스군이 철수하였다. 이로서 지엠 정권은 미국에만 의존하게 되고, 프랑스는 97년간의 정치·군사적 베트남 주재를 마쳤다.

이어서 지엠 정권은 제네바 협정의 군사협약은 지키되 정치적 합의사항은 지킬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제네바회담의 공동의장국인 영국과 소련은 어쩔수 없이 남-북 베트남 쌍방이 합의한 날, 협정에 정해진 선거를 치루는 것으로 하고 말았다. 이로서 제네바협정의 집행은 중단되었다.

협정 이행이 중단되자 북부의 공산정권은 단일 베트남 통일 계획을 중단하고, 북부만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주력하면서, 대남 관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제스츄어를 취하였다. 분단 상태를 인정하고서도 1956년 이래 여러번 남쪽의 우익 정권에게 교역 재개·병력 감축·적대 선전 중지 등을 요구하나 번번히 거절되었다. 미국의 지원하에 체제정비를 마치고, 베트남의 순수한 민족국가인 동시에 자유진영의 반공 보루임을 자처하게 된, 남부의 지엠 정권은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및 반정부주의자들의 색출·처벌을 시작하였다. 이 조치의 진행은 곧 탄압적이되고, 농민들의 반항이 시작되었다. 하노이의 지령에 따라 베트남은 이에 대한 무력 항쟁을 삼가고 관망만 하다가, 1960년 12월 20일, 향후 남부 공산화의 주

역을 맡게 되는 “남부월남해방전국동맹”(F.L.N.: Front National de Libération du Vietnam du Sud)를 조직한 뒤, 무력항쟁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한 지엠 정권의 진압이 힘들자, 1963년 11월의 쿠데타로 지엠 정권 대신에 군사정부가 들어서나, 각 정치적 파벌간의 싸움, 즉 카톨릭과 불교 종파간의, 정부와 군부내 파벌간의 알력으로 분열된 남부 정권은 오히려 와해될 지경이 되었다. 이에 존슨 미 대통령은 남부 무력 항쟁을 지원하는 하노이를 직접 공격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미국의 대대적 개입을 결정하였다.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베트남상태를 협상에 의한 정치적 해결을 보려는 시도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1965년 2월 7일, 미국은 하노이·하이퐁 등 북 베트남 요지의 폭격을 개시하고, 3월 8일, 최초의 미군이 베트남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7년간 베트남 북쪽을 계속했고, 제일 많았을 때(1967)에는 베트남에 파견된 미군이 550,000명이나 되었다. 여기에 남부 베트남은 군·경찰·민병대를 합할 경우 1,700,000명의 병력을 보유했었다.

1968년 1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F.L.N.은 사이공 시내까지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백여 군대의 도시와 촌락이 이들의 수중에 들어가자, 미국은 승전 예상을 바꾸고, 협상에 의한 해결을 결심하였다.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은 북위 19° 이북 폭격을 무조건 중단함으로써 우선 협상의 길을 열었다. 5월, 미국-베트남민주공화국 대표가 파리에서 만난 뒤, 10월, 양자는 회담 참가범위를 확대시켜 남 베트남의 두 교전 상대 즉, 베트남공화국과 F.L.N.도 참석시키기로 하였다. 1969년 1월에 다시 파리에서 열린 4차회담에서, 남 베트남의 띠우(Thieu) 장군이 F.L.N.의 참가자격을 들어 회담을 반대하자, 공산계는 F.L.N.을 “임시 혁명 정부”(G.R.P.: Gouvernement Révolutionnaire Provisoire)로 바꾸고(6. 4), 사회주의 및 비동맹 권의 20여국의 승인을 받고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그래도 진전이 없자, 미국은 이번에는 북 베트남과 비밀협상을 파리에서 진행하였다. 키신저-레 둡 토(Kissinger-Le Duc Tho)간의 3년여의 회담을 끝내고 1973년 1월 27일에 “파리협약”을 서명하였다. 미국의 하노이정부 인정, 미군의 베트남을 철수 및 미국의 베트남 내정 불간섭, 교전상태의 종식(1.28)과 자유선거에 의한 남부 베트남의 통일 등으로 된, 동 협약은 제네바협약과 같이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의 철수만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미군이 3월 29일에 베트남을 철수하였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띠우 장군은 남부 평정을 시도하였으나, 닉슨 미 대통령의 사임(1974. 8)과 미 의회의 남 베트남 지원예산 삭감으로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평화협정 2년만인 1975년 4월 30일 남 베트남은 공산정권에게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로써 베트남공산당은 제2차베트남 전쟁을 끝냈고, 베트남을 통일하여 30년만에 성공리에 급진주의 반 식민주의운동의 대단원을 내렸다.

V. 드 골의 정책방향

두차례에 걸친 베트남 전쟁의 비교전국 중에서 공산주의 제국을 제외하고는 프랑스가 가장 이 전쟁에 많이 간여한 나라이다. 오랜기간 식민지였고, 따라서 문화적·경제적으로 많은 연계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디엔 비엔 푸의 쓰라린 패배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제1차 베트남전의 교전상대였고 전쟁을 통해 프랑스에게 적어도 심리적인 패배감을 안겨준 베트남 공산세력이, 프랑스 자신이 끌어들이 미국과 치루는 전쟁인지라, 프랑스의 정부나 여론이 이 전쟁을 남달리 각별한 관심으로 주시하였고, 지원해 주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유지해온 프랑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본 프랑스의 대 베트남 정책은 우선 제2차대전 중에 대독 항전을 주도했고, 대전 종식 직후의 드 골의 임시정부(1944. 8. 25-1946. 1. 10)에 이어서 등장한 제4공화국(1946-1958)에서 담당했으나, 내각 책임제 특유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내각이 극히 단명했다.

제4공화국 정부의 급선무중의 하나가 식민지 즉, “프랑스 帝國”의 식민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최근의 전쟁에서 보여준 식민지의 기여도, 각 식민지 주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민족자결의식의 고조, 민족주의운동의 진전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이던 간에 변화가 없이는 더 이상 종전처럼 식민지를 경영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1946년에 제시한 “프랑스연합”은 더욱 분명한 자치권을 요구하는 피식민국민들에게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우선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지역에서 프랑스는 주권은 포기하되, “프랑스연합”에 얽어놓고 실질적인 관리를 한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베트남의 철수도, 제네바회담도 모두 프랑스의 뚜렷한 정책의 결여의 소산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가 동-서 양대 진영으로 분리되고, 서방진영은 미국이, 공산권은 소련이 주도하던 시기에, 드 골은 이와는 달리 독자적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다. 따라서 드 골 대통령의 비범한 외교정책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냉각기를 지내게 되었다. 이미 드 골에 의한 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 탈퇴가 미국의 정책과 괴리된 시기에, 대 베트남 중립정책이 추가됨으로써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조시키게 되었다. 어찌 보면 “베트남은 드 골의 대미 태도의 척도”⁴⁾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 베트남 정책도 달라진 것이다. 드 골의 공식 발언을 통해서 그의 대 베트남관을 보면 초기에는 친미적이었다가, 미국의 대대적 베트남 개입 이후 베트남에 군사정부가 들어

4) Michel Tatu, “France: de l'anathème à la discrétion et aux <bons offices>,” *Le Monde* (Jan. 25, 1973).

서고, 점점 극우화 하여, 베트남의 불교계파를 비롯한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지면서 드 골의 견해도 바뀌었다. 제2차대전 직후에 임시정부를 영도하다가 재야에 있던 시절의 견해는 다시 집권한 후 많이 달라졌다. 1963년, 드 골 대통령은 당시의 상식을 초월하여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남 베트남 정부와 바로 프랑스 자신을 디엔 비엔 푸에서 무찌르고, 결국은 제네바 협정으로 겨우 체면만 살리고 베트남을 포기시키도록 한 북 베트남을 동등히 다룬다는 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이미 말했듯이 남 베트남으로 하여금 프랑스의 진의를 의심한 나머지 프랑스와 단교까지 하는 사태로 밀고 갔었다. 드 골 대통령이 프랑스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기조를 세운 프랑스의 대 베트남 정책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정부에 의해서 그대로 승계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950년 3월, 프랑스의 베트남전쟁이 한창일 무렵, 제4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물러나 재야에 있던 드 골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만이 인도차이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호 쯔 민 정권을 歐-亞의 어떤 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지를 알고 있는 터에, 미국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 지원은 프랑스를 통해서, 또 프랑스를 위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1950년, 이번에는 U.P. 통신과의 인터뷰(7.13)에서 드 골은 인도차이나 전쟁이 한국전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지배에 대한” 것이고, “프랑스를 식민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이제 프랑스가 호 쯔 민을 맞아 싸우는 것을 본 이상 입을 다물어야 한다”⁵⁾고 꼬집었다. 프랑스를 위주로 하되,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던 이 당시 드 골의 견해는 1963년, 그가 제5공화국의 외교를 총 지휘하던 때에 와서는 바뀌게 되었다.

1963년 8월 29일, 프랑스의 획기적인 외교정책이 발표되었다. 드 골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유진영의 남 베트남과 공산진영의 북 베트남을 같이 다루겠다는 “해괴한 선언”⁶⁾을 하였다. 사이공 정부의 외세로부터 독립·탄압정치 중지·프랑스의 단일 베트남 희망 및 중립 등으로 요약되는 이 선언문이 발표되자, 사이공을 비롯한 남 베트남에서는 경악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 프랑스 외교의 진의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언에서 지칭된 “외세”는 바로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 딘 지엠의 사이공 정부의 탄압은 당시 각 정파를 총 참가시킨 국민 연합 정부를 수립하라는 야당의 탄압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프랑스가 단일 베트남을 원한다는 것은 프랑스 자신이 원인행위를 하였고, 서명한 1954년의 제네바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프랑스로서는 별 수 없이 두개의

5) *Ibid*

6) *L'Aurore* (Aug. 30, 1963, Paris). 이 일간지는 미군이 유럽의 베르린 철수는 구주에 대한 “배반”이라고 한 드 골이 같은 미군이 아주의 베트남에 주둔하는 것을 “모욕”으로 대한다면서, 이 상반되는 정책을 비난.

베트남을 동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베트남 개입이 “신식민주의(Néo-colonialism)”이라고까지 지적하는, 갑작스럽고 매우 중요한 프랑스의 대 아시아 정책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의사의 표시로 간주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의 철수 및 프랑스의 중립 선언이 바로 이 며칠 전에 중공의 모택동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여하간에 이러한 드 골의 태도는 정작 제네바협정을 체결한 프랑스의 선임 정부보다 더 “제네바 협정의 정신에 충실”⁷⁾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정책 발표 이후, 과연 프랑스는 남-북 두 베트남을 동등하게 대하게 되었고, 따라서 베트남의 두 분단 국가가 모두 파리에 외교 공관을 두게 되었다. 당시 사이공은 파리에 대사관이 있었고, 하노이는 영사관(1973. 4. 12일부터 대사관)만을 두고 있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9년에 남 베트남의 공산세력인 F.L.N.도 파리에 대표단을 두다가 “임시혁명정부”로 승격된 뒤, 1975년 부터는 역시 대사관을 두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도 5년이 지난 후 1963년에 발표한, 드 골의 획기적인 발언은 미국에게 바톤을 넘기고 철수한 베트남 문제를 그동안 취급할 계제가 안되어 거론을 양던 프랑스가, 더 이상의 소외된 상태를 벗어나려고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대 베트남 정책을 재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정치적 “입문”⁸⁾서인 셈이다. 이 정책발표 이후, 워싱턴은 “분노”하였고, 런던은 “놀랐다.”⁹⁾ 미국의 분노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나, 런던이 놀란 이유는 영국이 보기에, 프랑스가 극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해 당시의 유엔 사무총장 우 탄트(U Thant), 라오스의 수반나 푸마(Souvanna Phouma) 등은 이를 지지하는 반면에, 프랑스에 체류하는 베트남 인사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라지는 동안, 사이공에서는 반프랑스 데모가 일어났다. 사이공의 프랑스 대사관이 학생들의 피습을 당해, 경비원이 부상하고, 분노한 학생들은 반프랑스 구호와 “北進”(Bac tien)을 외치며, 드 골의 초상화를 소각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사이공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은 눈을 가린 모습의 드 골을 그리기도 하였다.

드 골이 대 베트남 중립을 선언한 다음해인 1964년, 프랑스는 중공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미국-남 베트남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드 골의 진의가 과연 프랑스가 아시아에서 재등장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가 아니냐는 추측이 빈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부정적 사태가 연이어 발생되고, 지엠 이후 군사정권의 대미국 유착이 심화되면서, 사이공은 결국 1965년 6월에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이후 영사관계만 유지하다가 1973년 7월에 정상화되

7) *Le Monde Diplomatique* (Sept. 1966, Paris).

8) Jean Lacouture, “Neuf ans après,” *Le Monde* (Aug. 31, 1963).

9) *Le Monde* (Sept. 2, 1963).

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우방인 미국이 개입하여 동남아의 반공보루를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소련과 중공 등 전 공산권의 지원을 받던 북 베트남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면서도, 정부에서는 북 베트남과 교역을 권장하고, 차관 공여·사업-재정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동시에, 개발기금을 공여하고, 소위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의약품·과학기재 등을 전달하였다.

1963년의 선언에 이어, 드 골은 계속 이 선언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1964년 7월 23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문제의 해결은 제네바회담에서 정한대로 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천명하고, 1966년 2월 21일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프랑스의 대 베트남 중립을 재확인하였다. 같은해 8월에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방문하고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다시 미국과 사이공 정부의 불만을 샀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힘입어,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양 베트남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남부보다는 북부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많았고, 여론 조성의 폭도 넓었다. 1965년 11월에 “남부베트남피해자 지원위원회”(Comité d'aide aux sinistrés du Vietnam du Sud), “재건운동”, “전국베트남위원회”(Comité National Vietnam) 등이 사이공쪽을 지원하는 민간운동이었으나 실적보다는 명목상으로 끝났다. 이와는 달리, 북 베트남, 즉 하노이쪽을 돕는 활동은 아주 활발하였다. 1965년 2월에 미 공군이 하노이, 하이퐁 등 북 베트남에 대한 “北爆”을 개시하자, 제일 먼저 이를 공격했고, 프랑스 공산당 및 동 관련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이를 반대하는 데모·강연회·전단배포·북 베트남을 지원하는 각종단체 조직·현금 및 구호품의 각출·북 베트남 파견 민간인 자원 봉사대 조직 등 각종 지원활동을 했으며, 이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북 베트남의 각 직종 대표단을 프랑스로 초청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문제의 중립 및 공동 지원정책은 드 골 이후의龐피두 대통령(Georges Pompidou: 1969-1974),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에 이어 현 미테랑 대통령(1981-현재)에게 승계되어 왔다.

VI. 프랑스-베트남의 현안문제

프랑스의 대 베트남 중립정책은 결코 남 베트남의 사이공 정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노이 정부는 비록 왕년의 교전국이었지만, 프랑스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선 양국간의 교역협정의 계속 갱신 및 프랑스 정부의 수출입은행의 대 베트남 수출보험 수리 등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대 하노이 교역을 프랑스의 베트남 철수 이후 계속하고 있었다. 양국간의 관계는 베트남의 적화통일 이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강점함으로써 모든 서방국가

가 베트남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킬 때에도, 따라서 베트남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에도 계속되어 양국의 장관 및 수상이 상호 방문해 왔다. 제네바협정이 있는지 39년간 계속되어 온 양국 간의 관계는 1993년 2월, 미테랑 대통령의, 서방측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인, 공식 방문에 이어 지난 6월에는 베트남의 보 반 키엣(Vo Van Kiet) 수상이 프랑스를 또한 공식 방문함으로써,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이 글의 결론을 곁해서 프랑스-베트남 간의 현안 문제를 고찰코자 한다.

우선 경제면에서, 프랑스는 베트남 시장의 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중국인들의 시장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다. 1992년도 프랑스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10억프랑을 초과했고, 투자규모로 보면, 외국투자자들 중에 프랑스는 제5위로서, 1992년말 현재 350백만불이고, 금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 85백만불(8개 프로젝트), 영업허가를 받은 민간은행 8개중 프랑스은행이 4개 (B.N.P./ Indosuez/ Crédit lyonnais/ BFCE), 60백만불을 투자한 은행들은 향후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봉쇄가 풀릴 경우 외국 투자자들과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베트남에 다음 3개분야에 강하다: - 통신 (지난 2월에 계약을 따낸 Alcatel), - 식수 (하노이를 제외한 모든 대도시의 수도관 개량), -보건 (병원-약국의 현대화, 프랑스 수출액의 35%). 기타, 항공분야에서 에르 프랑스(Air France)가 현재 베트남항공과 상담중이며, 뵈조-시트로엥(Peugeot-Citroën)이 자동차조립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1993년도 프랑스의 대 베트남 경제협력은 5억프랑으로서, 이는 1992년 액수의 2배이다.¹⁰⁾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과거의 역사와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키려고 현재 노력중이다.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에서 봤듯이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이제 막 시장 경제를 배워 가며, 개방사회로 진입하려는 베트남은 아직은 개발도상국가이다. 총국내생산고(GDP)가 139억불(1988), 국민1인당수입이 198불(1987)¹¹⁾인 이 나라는 선진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이런 베트남을 위해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교역증대에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 협력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제국중에서는 가장 많은 프랑스의 대 베트남 원조액은 1989년에 21백만프랑, 1993년에 75백만프랑 규모인데, 이 원조액의 1/3을 프랑스는 프랑스어 교육에 쓰도록 하고 있다. 1992년, 하노이에 개설된 알리앙스 프랑세스(Alliance française)에 매년 1,000명이 등록하여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으며, 곧 하노이, 호 쯔 민시, 후에 등지에 프

10) *Le Monde* (Jun. 25, 1993).

11) *Countries of the World & their leaders Year book 1992* (London, 1993).

랑스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350명의 간부를 포함한 많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현재 프랑스에서 준비하고 있다.¹²⁾

끝으로, 베트남과 특별관계를 백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프랑스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당연히 경제·문화적인 면에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날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부터 관계를 계속했기에, 프랑스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베트남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베트남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 옛날의 프랑스 교육을 받은, 프랑스 문화에 익숙한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번 미테랑 대통령의 방문시에 이미 프랑스는 1995년부터 베트남을 불어권 정상회담 그룹 회원국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가 같은 사람끼리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프랑스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미국·일본을 능가하는 더 많은 기술·경제·문화 협력을 증대시킬 계획인 것이다.

12) *Le Monde* (Jun. 25, 1993).